

타이완 구름표범. 대만 부티크 에디션을 위한 메티에 다르 모델 두 피스

블랑팡은 메티에 다르(Métiers d'Art) 컬렉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탐험한다. 세계를 향한 블랑팡의 열린 호기심이 자연에 경의를 표하며 탁월한 워치메이킹과 예술적 노하우를 조화시킨 독특한 작품을 탄생시켜왔다. 이번에 블랑팡은 역사 속 존재했던 신비로운 동물 중 하나인 타이완 구름 표범(Formosa clouded leopard)에게 헌정하는 두 개 모델을 선보이며 대만으로 떠난다.

대만 고유의 타이완 구름표범은 대만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물이다. 파이완(Paiwan) 원주민들은 이 표범을 영혼의 아이콘이라고 여겼다. 이 동물은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다. 블랑팡은 핸드 데커레이션 부문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이 상징적인 표범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내고자 했다. 타이완 구름표범과 마찬가지로 블랑팡의 예술적 손맛도 워치메이킹 부문에 있어 희소 가치를 자랑한다.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 등 몇몇 기법은 전 세계 시계 브랜드 중에서 가능한 곳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 샤쿠도(shakudō) 같은 기법은 오로지 블랑팡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기법이다. 블랑팡이 수행하는 예술 기법의 범주는 상당히 광범위할 뿐 아니라 오랜 과거의 것까지도 포함한다. 블랑팡은 다이얼 위에 타이완 구름표범 모티브를 재현하기 위해 르 브라쉬(Le Brassus) 에 위치한 메티에 다르 워크숍에 완전히 통합된 다섯 가지 기법을 선택했다. 자기(porcelain) 예술,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 샤쿠도, 인그레이빙, 다마스쿠스 등이 그것. 블랑팡 장인들의 정교한 손끝에서 완성된 이 세상 유일무이한 각 피스는 숲속 타이완 구름표범의 모습을 담고 있다. 나무를 잘 타는 이 표범은 나무 뒤에 숨는 것을 즐긴다. 나무 몸통과 잎은 일일이 페인팅하거나 손으로 직접 깎아냈다. 위엄 넘치는 표범에도 동일한 기법을 적용했다. 자기 위에 에나멜 페인팅, 인그레이빙, 샤쿠도 기법을 사용해 완성한 구름을 닮은 무늬의 갈색빛 털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이다. 인그레이빙 모델의 경우 블랑팡 장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표범의 수염을 실크만큼이나 얇은 금실로 한올 한올 만들어냈고, 이를 다마스쿠스 기법과 조합했다. 예술가의 손끝에서 다이얼이 생명력을 얻었고, 완벽한 기술력을 접목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자기에 에나멜 페인팅한 타이완 구름표범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33mm 사이즈 화이트 골드 케이스 버전으로 선보인다. 또한 매뉴팩처 1154 셀프와인딩 칼리버의 정교한 피니싱을 케이스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인그레이빙 &

다마스쿠스 샤쿠도 모델은 45mm 레드 골드 케이스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장식적인 타임피스에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코트 드 제네브 모티브를 장식한 15B 핸드와인딩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

자기 예술과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은 르 브라쉬 “농장(Farm)”의 블랑팡 매뉴팩처 장인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에나멜 기법 중 하나다. 시계에 에나멜 페인팅 다이얼을 놓기까지 극도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시작은 페인팅을 위한 표면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블랑팡의 에나멜 다이얼은 오랜 시간 굽고 건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석영, 장식, 고령토, 자기로 이뤄진 가루 형태의 포세린을 물에 녹이고, 다이얼 모양 틀에 붓기 전에 체로 걸러 모든 잔여물과 불순물을 제거한다. 틀에서 뺀 후 다이얼을 24 시간 동안 건조한 후 1,000°C 에서 24 시간 동안 굽는다. 화덕에서의 이 첫 단계를 통해 다이얼이 단단해지며 에나멜 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친다. 다이얼 위에 손으로 섬세하게 칠하는 에나멜은 1,300°C 에서 24 시간 굽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굽는 과정을 통해 에나멜이 유리질로 변하면서 반짝이고 투명해지며 견고함까지 얻게 된다. 준비된 다이얼 표면에 붓을 대기 전에 장인들은 만들어낼 이미지 스케치를 그린다. 때로 몇 번의 시도를 해야 할 때도 있다. 블랑팡 장인들은 디자인 자체뿐 아니라 디자인이 다이얼 위 다른 요소들과 만들어내는 조화까지 고려하며 균형을 찾는다. 디자인 레이아웃이 결정되면, 다음 단계는 컬러 선택이다. 에나멜 가루를 기본으로 재료들을 송근유(pine oil)에 섞는다. 에나멜 페인터는 필요한 컬러 톤을 갖춘 자신만의 팔레트를 만들어낸다. 블랑팡이 조제한 특별 레시피를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컬러도 있다. 컬러가 모두 준비되면 이제 페인팅이 시작된다. 아무래도 시계 다이얼이 작다보니 장인들은 극도로 얇은 붓으로 작업한다. 컬러가 에나멜 자체이기 때문에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1200°C 화덕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완성된 다이얼은 모두 유니크하며, 다시 말해 에나멜 페인팅 포세린 블랑팡 시계를 소유한 이는 이 세상 유일무이한 피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인그레이빙과 샤쿠도 다마스쿠스 다이얼

샤쿠도는 사무라이가 *카타나* 칼의 작은 부분을 장식하는 데 사용한 수백 년 역사를 지닌 일본 예술 기법이다. 블랑팡 장인들은 이를 유니크 피스 시계 다이얼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언제나 시계에 어울리는 새로운 기법과 독특한 장식 패턴을 과감히 적용하는 블랑팡의 혁신적 정신이 워치메이킹에 샤쿠도를 도입하도록 이끌었다. 샤쿠도는 옐로/오렌지 톤의 골드/구리 합금 컬러를 섬세한 톤의 블랙/그레이톤으로 변모시킨다. 보통의 경우 여기에 더해 블랙/그레이

컬러에 텍스처를 부여하기 위해 표면을 재작업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계 다이얼 디스크 형태의 기본 형태 합금을 로쿠쇼(rokushō)라는 이름의 (그레이톤 그린 컬러) 아세트산 구리가 함유된 따뜻한 화학 물질에 담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내는데, 이 고대 노하우는 가장 기본 형태에 있어서조차 시행착오 과정이 수반된다. 디스크를 반복적으로 빼서 씻어내고 컬러를 확인한 후 다시 담그는 과정을 거치는 것. 장인이 완벽한 컬러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순간 샤쿠도 과정이 끝난다. 이 기법은 화학 물질에 담그는 과정이 주된 작업이지만 블랑팡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그레이빙, 다마스쿠스, 조각 등의 추가적 기법을 접목한다. 뿐만 아니라 샤쿠도 기법을 작업의 다양한 단계에서 적용하며 다이얼 디스크 디자인에 추가적인 색감과 입체감을 가미한다. 각각의 블랑팡 샤쿠도 다이얼은 유니크하며, 이 유니크함이 컬러링과 인그레이빙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베리에이션보다도 더 깊은 매력을 선사한다. 그 어떤 디자인도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 고유한 디자인이 특별한 하나의 피스를 대변한다. 타이완 구름표범을 담은 다이얼이 좋은 예다. 이러한 타임피스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종이에 포즈와 배경 장식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전경 요소들과 함께 표범의 모습을 극도로 정교한 도구를 이용해 골드 애플리케 핸드 인그레이빙 형태로 모양을 잡는다. 표범 털을 장식하는 무늬처럼 이 애플리케 역시 각기 다른 소금물에 담가 원하는 컬러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것들을 다이얼 표면에 올린 후 다이얼에 미리 뚫어 놓은 구멍 속에 매우 작은 핀을 꽂아 자리를 잡는다. 핀 뒷부분은 조심스럽게 두드려 제자리에 제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샤쿠도 오브제들은 다마스쿠스 기법으로 장식했다. 이 고대 기법은 표면에 일종의 물결 무늬를 깎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부드러운 골드를 무늬 안으로 두드려 넣고 전통적으로도 그랬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두드리는 과정이 금실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에 그 부분을 폴리싱해 부드럽게 다듬는다. 샤쿠도, 인그레이빙, 다마스쿠스 기법을 조합한 블랑팡의 창조물은 워치메이킹에 있어 블랑팡의 유니크함을 단연 부각시킨다. 사실 블랑팡이야말로 이러한 기법들의 결합을 시도하는 유일한 메종이라고 할 수 있다.